

‘Park1538광양’ 개관… 철의 도시를 ‘문화도시’로

포스코, 광양에 복합문화공간 준공 시민 접근 위해 금호대교 인근 위치 홍보관·미술관·교육관 등으로 꾸려 ‘영원의 봉수대’ 연계 랜드마크 조성 “지역 미래 함께 그리는 열린 공간”

‘철과 빛의 도시’로 불리는 광양에 포스코 ‘Park1538광양’이 문을 열어 전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전망이다.

3일 포스코는 ‘Park1538광양’의 준공식을 열고 지역민들과 함께 문화와 산업이 숨쉬는 빛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 김철근 포스코노경협의회 대표 등 사내 인사는 물론 권향엽 국회의원,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 주요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Park1538’은 포스코가 4년 전 포항에서 처음 선보였던 복합문화공간으로, 사담을 포용하는 공간인 ‘Park’와 철의 융합적인 섭씨 ‘1538’의 의미를 담아 이름 지었다. 철이 다른 무엇으로 탄생하기 직전의 아름다운 순간과 포스코인의 열정을 담아냈다.

앞서 포스코는 광양에 두 번째 ‘Park1538’을 건립하기로 결정하며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Park1538광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철소를 벗어나 금호대교 인근 수변에 입지를 정한 바 있다.

건물 내·외관은 지역명인 ‘광양(光陽)’에서 착안해 ‘빛의 물결’로 디자인하고 포스코와 광양이 함께 만들어 갈 밝은 미래에 대한 의미를 담았다.

‘Park1538 광양’은 홍보관과 교육관으로 구성되며 지역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관 내 ‘포스코미술관 광양’을 함께 선보인다. 준공 전(展)으로는 ‘빛의 여정: Journey of the LIGHT’가 마련됐다. 포스코 4반세기 종합 준공 이후 33년이 지난 시간을 기념해 포스코그룹이 소장한



3일 광양시 금호동에 준공된 포스코 ‘Park1538광양’의 외관. ‘Park1538광양’에는 포스코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PosMAC)’ 등의 강재가 사용됐으며 홍보관 외관은 녹이 슬지 않는 포스맥의 실용성과 곡선미를 살린 파도치는 물결 형상으로 구현됐다.

포스코 제공



3일 포스코의 ‘Park1538광양’ 준공식에서 (왼쪽부터)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이경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 최대원 광양시장,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화 광양시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권향엽 국회의원, 박창환 전남 경제부지사, 이희근 포스코 사장, 김태균 전남도지사, 박진만 산업단지공단 본부장, 김철근 포스코노경협의회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미술품 중 33점을 엄선해 전시한다. 홍보관에는 미술관 외에도 영상관, 역사·제품 전시존 등 총 9개의 체험형 전시

및 영상 콘텐츠가 구성된다.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10m 높이의 대형 웰컴월을 비롯해 이머시브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10m 높이의 대형 웰컴월을 비롯해 이머시브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시 ‘세계적 핫플로’…유명 브랜드 호텔 건립 장흥군, 전국 규모 스포츠 행사로 지역경제 ‘들쭉’

여수시에 국내외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들이 들어서게 되며 관광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동양 최대 시설로 추진되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에서 호남 최초 글로벌 최고급 브랜드호텔이 들어선다.

29층 307실 규모의 5성급 호텔로, 설계는 국제 공모로 진행된다. 랜드마크급 디자인을 반영한 건축물로 설계한 뒤 내년 4월 착공할 예정이며 오는 2029년 개장을 목표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그랜드볼룸(대연회장), 세미나실, 실내외 수영장, 레스토랑 등이 포함된다. 리조트와 빌라형 콘도 등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어서 총 929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화양북해관광단지가 추진되는 여수 화양지구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206m 규모의 인피니티 사계절 수영장을 갖춘 ‘힐&테라스 콘도’가 들어선다.

화양북해관광단지조성사업은 6.43㎢ 부지에 골프장과 호텔, 콘도,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약 1조524억원이 투입된다.

핵심 시설이 될 힐&테라스 콘도는 지

하 6층, 지상 10층에 274객실, 500명 수용 규모의 컨벤션 등을 갖춘 숙박시설로, 사업 시행자인 HJ디오션리조트(주)는 지난해 11월 실시설계와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착공했다.

학동에는 세계적 호텔 체인인 힐튼호텔이 지상 24층 179실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반블루잉스가 추진하고 있다.

국내 유명 호텔 체인이 언급되는 수정동 30번지(면적 3만1000㎡) 일원에는 5성급 10층 규모의 호텔이 운동시설(수영장)과 편의시설(전담데크), 특수시설(해양광장, 동굴광장) 등을 갖추고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마쳤으며 실시계획 및 건축인허가 절차 이행을 준비 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가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에 공을 들였고, 여수가 K 관광을 대표하는 도시로 급부상하면서 관련한 국내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전국초등탁구·레슬링대회 등

장흥군이 4월 한 달간 다양한 전국 규모의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3일 장흥군에 따르면 4일부터 8일까지 ‘제51회 회장기 전국초등학생탁구대회’가 개최된다. 선수 및 관계자 약 1000여 명이 이번 대회에 참여할 예정으로, 지역 내 숙박 및 음식점 등 관련 업계에서는 손

님맛이를 서두르고 있다.

이어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3회 해럴드경제 전국레슬링대회’에는 15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장흥군을 찾을 예정이다.

또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일환으로 태권도 경기가 장흥군에서 열리며 따라 약 3000여 명이 매일 경기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군, 공공배달앱 ‘떡깨비’ 금요일 이벤트 진행

고흥군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일부터 공공배달앱 ‘금요일에 오는 떡깨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떡깨비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배달앱으로, 국내 배달앱 중 최저 중개수수료(1.5%)와 입점 수수료·광고료·월 사용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 결제 시 10% 적립 등 소비자나 소상공

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매주 금요일 ‘떡깨비’ 앱에서 최소 주문 금액 1만2000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3000원 연계 할인, 배달비 무료 이벤트, 공짜 배달 가맹점 월 20만원 지원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할인 이벤트와 혜

택을 제공될 예정이다. 공공배달앱 입점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입점 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를 준비해 떡깨비 누리집(https://mukkebi.com) 또는 고객센터(1644-7817)로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가치 있는 상품 소비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도록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배달앱 떡깨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우리가 꿈꾸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성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포스코가 만들어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그리는 열린 고품격 문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ark1538 광양’은 오는 14일부터 공식 홈페이지(http://park1538.posco.com)를 통해 누구나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소요 시간은 약 60분이다. 미술관은 하루 2회(오전 11시, 오후 3시) 운영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일반 관람은 예약 없이도 입장 가능하다.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우리가 꿈꾸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성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포스코가 만들어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그리는 열린 고품격 문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체육 인프라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에 힘쓰겠다”며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정환 기자